



<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한종수 (농사)		
면담자	송미정	면담지원자	정지선
면담일시	2025. 08. 29.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2실
녹취문 작성자	송미정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0:38)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한종수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 동아리 2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송미정이 하고 지원은 정지선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2. 개인신상과 운전면허 취득에 관하여 (00:39~07:29)

면담자 : 안녕하세요.

구술자 : 네 안녕하세요.

면담자 :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구술자 :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면담자 : 왜요?

구술자 : 시골 생활 그렇죠 뭐

면담자 : 그래도 좀 너무 땡볕에서 일하지 마세요.

구술자 :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농사일이라는 게 뭐 시간 맞춰서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게 아니고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이 없어요.



면담자 : 그래도 좀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제 낮에는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술자 : 예. 예.

면담자 : 구술 기록을 위해 성함 생년월일 출생지를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1949년 12월 12일 원래는 11월 5일인데 이제 시골 가서 이장이 오늘 날짜라 그러니까 12월 12일 오늘 날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바람이 12월 12일로 된 거고 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관동에서 태어나서 6.25 때 군자로 피난을 갔지요.

면담자 : 그럼 유년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내신 거죠?
그럼 그때 피난 갈 때 부모님과 식구들 다 가신 거죠?

구술자 : 네 다 갔어요.

면담자 : 군자에서는 몇 살까지 계셨어요?

구술자 : 군자에서는 21살까지요

면담자 : 그럼 21살에 군대 가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요. 그전에 간 거죠? 그전에 갔다가 군에서 와가지고 직장 구하려고 인천으로 들어왔죠. 다시

면담자 : 그러면 인천에는 몇 년도쯤에 오셨어요?

구술자 : 72년도요

면담자 : 인천에 일단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오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좀 얘기가 좀 그런데 우리 누님이 인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인천 여성 면허 1호예요. 여자로서는 1호로다가 면허를 내서 누님이 같이 사는 신랑 그러니까 매형이지 그 양반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인천으로 면허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왔어요.

면담자 : 그럼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건 무슨일이예요? 인천에 오셔가지고

구술자 : 남의 집 조수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면담자 : 운전면허를 따서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술자 : 그렇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면허를 70년도 말에 땀어요.

70년도 말에 근데 매형이 한번 와 봐라 그렇게 해서 뚜렷한 직장이 없으니까 한번 와 봐라.

그래서 와 갖고 조수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 기사를 잘 만났어요.

그 양반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세히 가르쳐 줘 가지고 1년 후에 나도 기사로 승진을 했죠.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지만

면담자 : 그러면은 운전면허 따실 때 옛날에는 학원 위치가 어디고 그때는 지금하고 또 교육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구술자 : 그때는 이제 이 코스는 똑같아요. 에스코스 타고 티자 그거 이제 그거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이 라인을 밟으면 뽀뽀 소리가 나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이 볼링 봉 같은 봉을 세웠어요. 봉을 세워가지고 가다가 3개 이상 떨어뜨리면은 불합격 자빠뜨리면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면담자 : 제가 선생님이랑 통화할 때 사촌분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우연치 않게 따셨다고 하셨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구술자 : 먼 친척 사촌 되는 사람인데 금산 사람이예요 우리 집에를 왔고 저도 이제 장손인데도 그 많은 농사 짓기 싫어서 운전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물포 남중학교 밑에 보면은 지금도 그 철로 노선이 그냥 있더라고 용현동 철로 깔린 게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경기 자동차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8주예요. 교육 기간이 8주인데 7주를 다니고 났는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보가 와서 내려가면서 돈을 일시불로 다 냈으니까 구제 방법이 없느냐라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갔더니 구제 방법은 없고 이미 7주를 다녔는데 다 소모된 거 아니냐 1주 남은 건데 대신 명의를 바꿔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면허를 냈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면허 딴 게 70년대

구술자 : 70년 후반 12월

면담자 : 그러면 연도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한 78년도에서 79년도쯤 되신 거죠

구술자 : 뭐가요?

면담자 : 면허 따신 게

구술자 : 70년

면담자 : 70년 네

구술자 : 70년

면담자 : 이걸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게 그런 거구나

구술자 : 네 70년도

면담자 : 그러시구나.

면담자 : 그러면 그 위치는 그때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학원위치

구술자 : 네 위치가 용현동에서 제물포로 나가는 기차길이 있어요. 그 길 바로 옆에 보면 남중 그때는 남중 바로 그 학교 밑에 거기 공터에다가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 말인지 조선 한국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짹차인데 다찌차라고 그랬어요. 그때 군용 다찌차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승용차 갖고 보고 봉고차 갖고 보는데 그때는 다찌차



갖고 봤어요.

3. 구술참여 동기(07:30~08:23)

면담자 : 저희 인터뷰 구술에 참여해 달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구술자 :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고맙게 생각했어요.

면담자 : 인터뷰로 인해 경험과 증언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이 됐으면 하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구술자 : 글썄 뭐 하찮은 사람이 얘기한 거 같지만 그래도 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죠. 뭐

4. 인천에 오게 된 계기와 결혼생활(08:24~14:04)

면담자 : 군 제대 후에 인천으로 오셨잖아요.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고향 떠났을 때 특별한 계기는 없고 농사짓기 싫어서 오신 거잖아요. 인천 오셨을 때 선생님이 어디로 처음에 오셨어요?

구술자 : 내 거주지가 정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누님네 좀 얹혀살다가 조수 생활을 하러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거주를 했죠.

면담자 : 누님이 그때 당시에는 어디 사셨어요? 인천에

구술자 : 용현동이요 제2교회인가요? 용현동이 제2 교회라던가 물텀병이 있는데 그 골목 뒷구멍으로 올라가 꼭대기 산꼭대기 제1교회 제2교회가 있었는데 제2교회 바로 밑에 거기서 살았었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조수 생활하시면서 그 주차장에서 거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는 위치가 어딘지



구술자 : 수인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제당이고 터미널이고 그때가 다 바다였었어요. 그 앞에 낙섬이라고 있었는데 그 배 타고 건너가서 낚시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연안부두 생기기 전이니까 다 매립한 거예요. 연안부두도

면담자 : 고향에서 유년 시절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생님 되게 개구쟁이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 유년 생활도 우리가 그 정미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미소 좀 도와주고 농사일도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럼 용돈은 조금 넉넉히 받으셨어요?

구술자 : 아니죠 그때는 용돈이라는 게 없고 일을 시키는 거니까 해야지 용돈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시골 사람들 다 그렇죠 뭐

면담자 : 결혼은 언제쯤 하셨어요?

구술자 : 30살 때였는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결혼기념일 생각한다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뭐 연도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기념일을 생각을 해요.

면담자 : 사모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구술자 :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두 번째인데 재취고 재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사람 만났을 때는 그 얘기도 할까요?

면담자 :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구술자 : 아니에요. 길어서 그래요. 근데 재미는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그때 카고 트럭을 했어요. 제철소 물건 철근을 싣고 대구를 가는 건데 그전에 우리 누님하고 누님 친구가 송림동에서 살았어요. 송림 4동에서 그랬는데 송림 로타리 돌아서 방문여고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중인데 그분을 봤어요. 그 사람하고 인사를 한 번 했는데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놀러 왔다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떤 여자가 쑥 들어왔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이 보길래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얼른 봤나 봐요.
또 손짓을 해서 세우래요. 그래서 섰어요. 그랬더니 시장 가는 길인데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나 멀리 간다고 그랬더니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으면 타라고
그래서 탔는데 내가 장거리를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인천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일주일 만에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한 사람인데 이북 사람인데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구술자 : 그래서 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이냐고 그러니까 저 집이래요. 사실은 손목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조수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마루에
식구들이 다 있어서 여기 이제 이름이 이영신인데 이영신 씨네 집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그냥 욕이 나오는 거예요.

면담자 : 그럴 만하죠.

구술자 : 그러니까 맞아 죽는다고 안 들어가는 거를 어거지로 떠다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도로 나왔더라고요. 또 들어갔다가 돌아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냥 할 수 없다.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저기 수봉공원 밑에다가 월세, 달세지 달세 30만 원 주고 달달이 까는
거예요. 3만 원씩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언제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면담자 : 선생님은 그럼 연애도 안 해보시고 그냥 결혼하신 거네.

구술자 : 그렇죠. 일주일 만에 그냥 차 타고 갔다가

면담자 : 그냥 차만 타고 왔다 갔다만 했는데

구술자 :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 저기도 모르는 거야. 나는 근데 뭐 알아도 소용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냥 애 하나 낳고 보니까는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죠.

면담자 : 그러셨구나

5. 동양화학 소금운송을 하다(14:05~27:19)



면담자 : 그러면은 70년대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면허를 취득 하셔가지고 운전을 많이 하셨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질문을 까먹었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낙섬 거기까지 차 타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수 생활을 하고 그때 동양화학 그때가

면담자 : 그럼 동양화학

구술자 : 소금을 실어 날랐어요.

면담자 : 그게 혹시 몇 년도인지는 기억나세요

구술자 : 기억이 잘 안 나요.

면담자 : 대충 70년대 초인지 중반인지

구술자 : 중반쯤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내가 그 조수로 간 집이 하인천 파출소 뒤에 보면 허준범 씨라고 그 집 차가 3대가 있었는데 그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연안부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인천 지금 대한제분 있는 그 자리가 염부두예요. 염부대에서 외지에서 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발판 타고 올라와서 차에다 싣고 이제 뭐 다광 공장이든지 뭐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수를 하다가 한 6개월 타다가 그냥 바로 기사로 올라탄 거죠.

면담자 : 염부두에 소금이 들어오면 그 소금을 배에서 내릴 때랑 차에 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삽으로 퍼서날랐나요

구술자 : 아니예요. 그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금이 발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포장을 해서 가마니에 포장을 해서 일본 말이에요. 이것도 가대기¹⁾를 했어요. 배에서 육지로 발판을 놓고 발판 2개를 놓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한 3~40명이 빙 돌아가면서

1) 까대기라고도 함. 주로 택배 물류센터나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쏟아내거나(까고) 다시 싣는(대기) 노동 집약적 분류 및 적재 작업을 비유하는 은어.



이제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어깨에다 매주면 어깨에 메고 발판 타고 내려오고 차에다 부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가대기를 해서 실었어요. 바라로 들어온 거는 연안부두 생기고 나서
에요.

면담자 : 직접 가마니에다 어깨 짊어지고 내리고 싣고 다 하신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없어서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 : 순수 다 사람이

구술자 :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다

면담자 : 그랬구나. 그 허준범 님은 사업체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차만 3대가 있었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차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차가 일본에서 쓰던 차예요.

전부 63년 64년 61년 이런 연식이 그런 차들을 갖다가 여기서 굴린 거예요.

한국에는 차를 못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한 10여 년 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GM에서 SMG라고 GM GM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면담자 :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 차가 3대가 있어서 그 차를 맡아서 해주신 거네요. 그럼 그때 월급을 받으신 거예요? 차운행해 주고

구술자 : 그렇죠 월급 없이는 안 되죠.

면담자 : 월급은 그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구술자 : 6만 원



면담자 : 그때 쌀 한 가마니가 혹시 얼마 정도 었어요?

구술자 : 2천5백원 2천5백원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면담자 : 그러면은 월급을 많이 받으셨네요.

구술자 : 뭐가 많아요?

면담자 : 쌀 한 가마에 2천5백원 3천 원이었으면 그래도 월급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월세가 3만 원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었네

구술자 : 많은 거 아니죠. 그럼

면담자 : 그러게요. 차 운영비나 세금은 거기서다 대주고

구술자 : 그건 차주 몫이고

면담자 : 운전만 해 주시고 월급만 받고

면담자 : 그래서 월급이 조금 적으셨구나. 학익동에서 사실 때는 뭐 재미난 일 없으셨어요?
주민들이랑

구술자 : 학익동에서는 산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극동 관광이라고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동 관광이 석바위 있었거든 인고 앞에 차고지가 지금 무슨
예식장이던데 그게 예식장 자리 인고 앞쪽에

면담자 : 네 있어요. 지금

구술자 : 거기가 극동 관광 차고였었어요.

면담자 :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옥시크린이 동양화학에서 84년에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오류동 쪽으로도 그때 운반 가시고 하셨다고



구술자 : 그랬죠.

면담자 : 오류동에는 혹시 어떤 제품을 운반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 거기도 소금 갔어요? 알 소금

면담자 : 그럼 소금만 갔어요. 오류동에 소금만 갔어요? 아니면 석회석이랑 이런 것도

구술자 : 아니 아니 소금만 갔어요.

면담자 : 소금만요

구술자 : 네 그리고 여기 동양화학도 소금만 나르고 하루저녁에 주야로 작업을 하니까 한 3~40대가 그냥 계속 돌아오니깐 몰랐죠.

면담자 : 그러면은 염부두에 소금이 들어오면은

구술자 : 아 그때는 염부두가 아니고 동양화학에 들어왔을 때는 저기 연안부두 도크 도크에서 본선으로 싣고 들어오면 바라로 싣고 들어오면 부려서 거기서 그냥 페로다²⁾가 막 실어주면은 갖다 부리고 그랬죠. 오류동도 그렇게 갔어요.

면담자 : 그러면 70년도 중반이고 연안부두 그때는 연도 수가 어떻게 돼요?

구술자 : 나도 확인을 해볼까? 그럼

구술자 : 참 우리 쫓따구가 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도 잊어먹었네. 또

면담자 :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면담자 : 동양화학 갈 때 연안부두에서 소금만 하신 거네요. 염부두에 있을 때보다는 연안부두 쪽에서 거리가

2) 페이로더(Payload). 흙, 자갈, 석탄, 모래 등 벌크 자재를 퍼서 트럭이나 적재소로 옮기는 건설기계



구술자 : 거리가 가까웠어요.

면담자 : 염부두 때 보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었잖아요. 염부두에서는 가마니로 해서 날랐는데 인천항에서는 어떻게

구술자 : 거기는 바라로 실었죠. 바라고 그 알소금으로 가마니에 포장된 게 아니고 알소금으로다가 본선에서 그렇게 외항선에서 그렇게 싣고 들어오니까

면담자 : 그러면 소금을 레일 같은 데 해서 차에 바로 직접 실어 가지고

구술자 : 아니에요.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돌소금이에요. 산에서 난 돌소금 캐는 거 그거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바지선에다가 또 옮겨 실어요. 본선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으면 바지선을 끌고 부두로 오면 부두에서 부려서 바닥에다 놔요. 바닥에다 놓으면 저 페로다가 페로이다라고 해요. 정확히 페로이다 그게 실어줘요.

면담자 :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선생님 죄송해요. 바지선에 싣고 오면은 어쨌든 소금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 육지로 옮기려면 어떻게 이걸 옮겼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이게 본선이면 바지선이 와요. 그러면 본선에서 이걸 여기다 실어줘요. 바지선에다가 그럼 바지선이 오면 부두에서 그것을 풀어서 바닥에다 쌓아놔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차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실어주는 거지

면담자 : 그러니까 여기 바지선에서 이 바닥에 이렇게 올릴 때 크레인 크레인으로

구술자 : 이렇게 바가지로 된 크레인 위로다가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페로이다가 퍼서 차에다 실어주는 거죠.

면담자 : 그러면 이 페로이다가

구술자 : 앞에 큰 바가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퍼가지고 들어서 쏟아주는 거지

면담자 : 그렇게 해서 덤프에 실어주고 보통 소금이 들어오면은 아까 열핏 얘기하셨는데



밤낮으로 나른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며칠이 걸려요

구술자 : 한 이틀 2~3일밖에 안 해요.

면담자 : 그때도 선생님이 소속에 들어가셔서 운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급여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2~3일 그렇게 일하고 나면은 그 일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으로

구술자 : 우리는 월급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덤프차가 싣고 동양화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근대가 있어요. 차체 계근을 해요. 그러면 차 몽땅이 한 12톤 정도 나오잖아요. 아니 18톤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때 빈 차를 또 달아요. 달면은 이게 8톤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중량은 10톤이예요. 그러니까 10톤짜리 티켓을 하나 끊어주면 차주가 그걸 갖고 돈을 받으러 가는 거죠. 운반 요금을 우리는 월급이라 그 일만 해주면 끝나요.

면담자 : 조금 나르시면서 혹시 뭐 재미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사고 났었던거나 이런 거는

구술자 :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조금 나르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바쁘지 무슨 뭐 누구 견제를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견제는 하겠죠. 한탕이라도 더하려고 그런 거는 있을망정 무슨 누구를 견제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거예요. 차주가 뭐라 그러든

면담자 : 특별하게 재미난 일은 없었고 그냥 싣고 가고 싣고 오고 이것만 하신거예요

구술자 : 멍빙멍빙해요. 아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면담자 : 그때 당시 염부두에서 조금 나를 때하고 인천항에서 조금 나를 때 하고 이 도로 사정은 어땠어요?

구술자 : 도로 사정이 대부분 비포장이죠. 비포장인데 그 2차선이에요. 2차선 가고 오고 그러는 2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다 그냥 길이 넓어도 흙길이죠. 석바위에서 부평 가는 데는 흙길이에요. 학익동 오는 것도 그렇고



면담자 : 그래도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운전을 다 잘하셨나 봐요.

구술자 : 아 그렇죠.

면담자 : 차가 넘어지고 그런 것도 종종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술자 : 네 많죠.

면담자 : 그러니까 일하실 때는 그게 없으셨고

구술자 :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2차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아끼려고 기아를 빼요. 내리막길에 그리고 그게 후리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쪽 빠른 속도로 내려가야죠. 중량이 있으니까 그럼 그다음 언덕을 못 넘어가요. 근데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기아가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미션이 오다 떨어졌어요. 중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면담자 :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구술자 : 그냥 서 있는 거죠. 뭐 정비사 와서 고쳐주는 거지 요만한 볼트 하나라도 지금은 국산이 좋은데 그때만 해도 국산은 한 번 꼭 조이면 이게 부러질 정도고 그냥 이 야마가 어긋나서 헛돌고 그럴 적도 많아요.

면담자 : 그러면 트럭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구술자 : 트럭을 70년대 말서부터 80년대 초까지니까 한 10여 년 했죠.
그리고 해외에 갔으니까

6. 해외 근무 생활(27:20~42:40)

면담자 : 그럼 해외에 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기사를 보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구술자 : 지인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도 또 재미나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도 여기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은 정비를 해요. 이 뿌레카(브레이커, 착암기) 돌 깨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사촌 형이 두산 그룹 두산 팽권표 통조림 슬래트 만들고 그러는 아니 두산 그룹이 아니라 한국건설 건설업 했던 거기에 해외 송출부 부장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이니깐 한번 가자. 사우디를 한번 가자. 그래서 그때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그 두 파트예요. 하나는 알 코레프³⁾ 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디 현지인하고 합작을 한 회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한국 건설업이 가서 공사하는 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송출부에서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친척인 줄 알고 나를 좋은 데로 보냈어요.

구술자 : 알 코레프 한국으로 28명밖에 없었는데 가니까 이거 2볼 75센트 받고 갔어요. 시간당 그랬는데 가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월정자로다가 해서 90만 원씩 주겠으니까 그걸로 묶읍시다. 그 얘기에요. 놀아도 그만 일해도 그만 그런 거야. 근데 개는 공사가 다 끝난 대로 가서 35만원 40만원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도 그걸 얘기를 하면 썸박질을 무지하게 했대요. 나를 왜 그런대로 보냈냐고 그렇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면담자 : 또 더 재미난 일은 없었어. 거기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 경험을 따지면 많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켜도 좀 벌고 아니 3배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배다리에 있는 한국은행인가 그 은행에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돈을 타러 가잖아요. 그 처음에는 좀 마나님들끼리 같이 가요. 월급이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서부터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007 가방에 5백만 원씩 줘요. 출장 가면 한두 달씩 걸려서 오니까 그 사이트가 열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페크라이트 캐싱 이런 거 키포라고 우물 파는 그 장비가 있어요. 30톤짜리가 그거에 쓰이는 저기들 실어다 주는 거예요. 나는 추레라(트레일러) 면허는 없는데 그때 가니까 추레라를 하나 하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추레라면허는 냈어요.

구술자 : 그래서 오는 바람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추레라를 끌고 다니라고 그래서 끌고 가니까 땅이 넓으니까 그냥 뭐 여기다 이렇게 대라고 그러면 한 바퀴 빙 돌아서 오면 되지 뭐

3) 1957년에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 그룹. 주로 수자원, 에너지, 농업,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우디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비전 2030)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굳이 빠꾸할 일도 없잖아요. 땅이 넓은 데니까 그렇게 해서 추레라를 억지로 좀 배웠는데 출장 가면 한 5백만 원씩 주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1.8리터 물병 하나가 30리알이에요. 사우디 리알로 30리알인데 디젤 한 드럼통이 30리알이에요 바꿔요 그걸 그렇게. 근데 그거를 다 쓰려면 다 못 쓰잖아요. 아무리 한 달 두 달 돌아 다니고 사우디에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자고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엔진을 갈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그래요. 개네들 말로 빠돌라라고 그러는데 [폴리스\(00:31:58\)](#)는 써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구술자 : 그 영수증을 이만큼씩 받아 갖고 들어오면 정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뽕뽕하고 들어오면은 이집트 친구 정비사 하나가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 담배 한 보루 주면서 야 빠돌라나 좀 써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다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은 내 거고 3분의 1만 반납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은행이 없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100불짜리로 교환을 해요. 그러면 그 폴로라이드 사진을 보면 뒤에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찌면은 금속이 나와요. 100불짜리를 싹 다려서 거기다 집어넣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이고 집으로 부치면 100번 다 옵니다. 해외 우편물이라고 그래서 다 와요. 주인이 있어야 줘요. 또 근데 이제 크리스티안 디올이나 피에르가르탱 그런 데 가면은 여성들 옷이 속옷이 진짜 이런 종이 같아요.

구술자 : 그런 거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주면 100번 다 와요.
한 개도 새는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얻어 입었지.

면담자 : 해외에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때 돌아오셔서 주차장을

구술자 : 아니에요. 또 갔어요. 인도네시아를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켄을 좀 벌여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또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또 해외에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 인도네시아 가서도 참 편안했어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사 노릇을 했으니까

면담자 :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구술자 : 의무실이라고 있어요. 현대건설로 갔는데 그때 처음에 가서 첫 달에 120만원 130만원씩 붙였어요. 집으로 내가 그 3백불을 받거든요. 거기서 쓰는 돈을 치약 칫솔 이런 거 사 쓰라고 근데 그걸 빼고도 130만원씩 집으로 송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 저녁은 공장장이 부르더니 우리는 운전 중기부 소속이잖아요.



그 공장장이 부르더니 의무실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실로 왜 가요? 그랬더니 그 엠브란스가 하나 놓고 있는데 기사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월정자로 묶여서 총무과 소속으로 월정자로 묶이면은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돈 벌러 간 사람이 그거 월정자로 묶여서 돈 40만원 벌려고 거기에 간 건 아니잖아요. 나 여기 못 옵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씩 벌었냐 그래서 내가 월급 명세서를 갖다 보냈어요. 이렇게 나 이만큼씩 부쳤다. 아유 많이 하시긴 하셨네요.

구술자 : (35:16~36:47 구술자 비공개 요청)

구술자 :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있으니까 그거 인도네시아 말도 제법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요트를 하나 얻어서 인도네시아 섬이 얼마나 많아 여행 다니고 날더러 맡긴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걸 6개월 동안 배웠어요. 약 지어주는 법을 근데 소염제 소화제 말싱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약 짓는 게 우리가 약국에 가서 사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복절이 3일이 늦어요. 18일 날이에요. 우리는 15일 날이잖아요. 왜 늦냐면 그만큼 늦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일본 천왕이 손들은 거를. 근데 얼마나 자연 요법만 썼는지 내가 우리 해외에 가는 사람들 전부 콘텐600을 다 사갖고 가요. 감기몸살 나면 먹으려고 근데 의무실에 있으면서 한 사람이 다른 지역 경찰서 서장인데 살인을 하고 온 거예요.

구술자 :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공산주의 인천은 민주주의 수원엔 공산주의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요. 추종하는 자들이. 근데 그쪽에 있는 서장 경찰서장 아들이 살인을 하고 우리한테 왔어요. 와갖고는 그냥 의무실로만 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일은 안 하고 왜냐하면은 의무실에 오면은 에어컨 2대가 그냥 뽕뽕하게 돌아가거든요. 뽕뽕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프다고 그러고 와요. 그럼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그냥 콧물이 나고 뭐 목이 아프고 전부 감기죠. 뭐 하도 오길래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 혈관 주사액을 피부에 근육에다가 5cc도 말고 그냥 한 3cc 정도만 투입을 하면 돌덩어리 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못 앉아요. 혈관 주사 놓는 거를 포도당을 빼서 그 근육에다가 놔주면 그래요. 그래서 너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줬어요.

구술자 : 그랬더니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오케이 인젝션 그래 그러면 노노노 아니래 그렇게 그렇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면담자 : 그럼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혹시 몇 년도에 가셨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 아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올림픽을 봤어요.
88년도 그전에 간 거야. 그러니까 80년대 초일 거야. 아마

면담자 : 그러면 초에서 한

구술자 : 2년 했어. 사우디 2년 거기 2년 돈벌이가 좋으니까 그냥 죽치고 있다가 왔죠.
그러니까

면담자 : 인도네시아에서 한 중반쯤에 있었고 사우디에서는 80년대 초반에 있었고

구술자 : 네네네 그게 와서 88올림픽을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진관광이라고 거기를
입사를 했죠.

면담자 : 거기는 무슨 회사예요?

구술자 : 어디요?

면담자 : 선진관광은 뭐 하는 회사예요

구술자 : 관광 회사예요? 그때서부터 관광 한 거예요.

면담자 : 그럼 관광버스 운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몇 년 하시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구술자 : 그것도 한 거의 한 30년 정도 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좀 힘드신 손님도 많으셨을 텐데

구술자 : 아니에요 대접받고 다녔어요. 그때는 관광버스 한 번 타려면 한 6개월 정도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인천에 5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관광회사가 그러니까 관광 가고 싶은
손님들 그때 이제 올림픽 치르고 나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서로들 관광버스 타려고 그러니까
그냥 대기를 한 6개월 정도 해야 관광버스 한번 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우받았어요. 버스 기사들이

면담자 : 선진관광 그만두시고 주차장을 하신건데요

구술자 : 아니죠? 선진관광이 부도나는 바람에 극동관광을 샀어요

면담자 : 거기서도 운전을 하시다가 뭐 재미난 일 없었어요.

구술자 : 극동 관광에서는 뭐 재미난 일은 없고 그냥 아주 험차라서 맨날 고장 나서 중간에
뺏어 뺏고

면담자 : 그러면 관광회사를 그만두시고 어디서 주차장을 하시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구술자 : 나도 그 관광버스를 하다가 송의동에 무슨 부폐인데 송의 예식장이든가 하여튼
공설운동장 조금 와갖고 제물포 쪽으로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예식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이 일본 사람 땅인데 자기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얻었어요.

그래 그 땅을 내가 주차장을 하자고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그 예식장에서 일 보는 양반이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으니까 이거 맡으시오.

그래서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주차장을 하기 시작이 됐죠.

7. 주차장을 운영하다(42:41~55:32)

면담자 : 그럼 송의동에서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구술자 : 한 2년 했어요.

면담자 : 그럼 왜 거기서 안 하시고 왜 조개고개 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구술자 : 그게 또 역사가 있어요 정희형이라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하고 나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형님 여기 차고지 증명 좀 뵈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외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대니까 뵈 수 있을걸 그래 가서 평수를 알아보니깐 297평이에요. 3평이 모자라서
차고지 증명을 못 뵈어요. 버스가 20대가 주차를 하려면은 저기 300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바둑바둑4)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오다 가다가 여기 조개고개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내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주차장을 한 4천 평 정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주차장 거기 세 놓으려고 갔는데 한번 가보시오 그래요.

가서 찾아보니까 주차장 허가가 난 거예요. 노외 주차장으로.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술자 :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세를 놓을 거냐 그러니까 세를 놓는대요.

그럼 내가 들어올게 얼마 평당 2천5백원씩 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들어올게 그 차고지 증명을 띄워주려고 들어왔는데 아 요놈이 다른 사람한테 그 송진섭이라는 사람이 나 천 평만 주시오 해서 그래서 그 앞에다 천평을 줬어요. 나는 3천평 2천평을 뒤에다 하고 그랬는데 그 송진섭이한테 차고지 증명을 떼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미워요 그래서 그 땅 그 사람한테 내주면 나 당장 나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안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가를 못 냈어요. 그렇게 암체 같은 놈들이 있어요.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끝까지 해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차고지 증명 때문에 아주 그냥 망했지 뭐 나도 우리 그 주차장 하면서요. 돈 무지하게 뜯겼어요. 몇억 뜯겼어요.

면담자 : 조개고개에서 주차장 운영하실 때 주로 버스를 많이

구술자 : 우리는 버스만 받았어요. 관광버스만

면담자 :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구술자 : 깨끗하잖아요.

면담자 : 왜 다른 차는

구술자 : 화물차 같은 경우는 모래 자갈 골재 싣고 그러면은 그 적재함 같은 데 그냥 막 종이 같은 거 파지 같은 거 싣고 다니고 그러면은 화물차들은 다 그래요. 그냥 다 날리고 다 쓸어서 버리고 버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머니들을 고용을 하면 청소 짝 해서 다 모아놓고 깨끗해져 그게



면담자 :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안에 청소를 해 주시잖아요.

구술자 : 그럼요

면담자 : 그러면은 청소비는 주차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그걸 받으셨었어요

구술자 : 따로 받죠. 청소비는 따로 받아요.

면담자 : 청소비는 얼마씩 받았는지 여쭙봐도 돼요.

구술자 : 영업 비밀인데 관렸으니까 괜찮아요

면담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또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2십만원 청소 한 번 해 주는데 2십만 원씩 받으신 거예요

구술자 : 한 달. 한 달 치. 한 달 치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면담자 :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여쭙본 거예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그거 받아서 아주머니들 다 나눠줘도 나는 먹을 게 없지만은 차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들 오지

면담자 : 버스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주변에 그때 당시에 회사가 많았잖아요.

구술자 : 많았죠.

면담자 : 통근버스도 혹시 거기 많이 주차를 했었나요

구술자 : 그럼요. 관광버스가 통근 안 하면은 별로 아침에 통근 뛰고 일을 나가죠.
출퇴근해주고

면담자 : 장거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만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겠네요.



그 기사분들은

구술자 : 아니에요. 장거리도 다 다녀요. 숙박도 다 다니고 다른 차로 대체를 하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내가 한 달에 3백만원이고 4백만원이고 출퇴근시켜주는 걸로 계약을 해서 넣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 가고 딴 데 가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한 달은 해줘야만이 기름값이고 뭐고 내 돈 생돈 들어가서 해야만이 그 돈이 나오잖아요. 후불이니까 그러면 그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차로 대체해 주고 내가 일반일을 나가서 현찰를 가져다가 땀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로 다 대체를 하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면담자 : 그러면 조개고개 근방에 통근버스로 운행하셨던 회사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두산도 있고 대우자동차 콜트악기 콜트악기라고 부평 톨게이트 옆에 있는 건데

구술자 : 개인이 연고는⁵⁾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서 공항 다니는 거 뭐 하여튼 많았죠. 여기저기

면담자 : 혹시 학익동 주변에 출퇴근시켜주는 회사 기사님은 안 계셨었어요?

구술자 : 글썄 그거는 없었어요. 우리는 삼광유리에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주차장에는 없었어요. 그쪽에는 동양화학이고 뭐고 그런 데는 없었어요.

면담자 : 주차장 운영하시면서 기사님들이랑 재미났었던 일 아니면 동네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랑 재미났었던 일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구술자 : 주민들한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차가 고정적으로 몇 시 몇 시 들어온다는 규정이 그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도 좀 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소음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3키로짜리 설탕 하나씩 돌리면 입을 짹 닦아요.

면담자 : 명절 때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한 번씩 돌려주면 입 닫아요. 그래도 트러블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5)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



면담자 : 그래도 주민들 중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술자 :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 마을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능허대중학교 자리 해양경찰청 자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주차장을 처음 했던 자리인데 거기에 땅 주인하고는 식사를 몇 번 같이 했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 가끔 한 번씩 내려오면 그냥 저 법원에서 학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냥 물수를 해버렸어요. 땅을 그리고 36억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한 50억 나가는 땅인데 36억 주고 공탁을 걸어놓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라면

말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내려와서 한마디 하고 가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뭘 알아요

면담자 : 주차장 운영하시다가 여기 조개고개에서 나가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구술자 : 그래 학교 짓는 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면담자 : 학교 짓는 거

구술자 : 학교 짓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아래 옥련여고 밑에 경일 렌트카라고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하고 그냥 봉고차 몇 대 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차장에서 정비하던 사람이 거길 가더니 자기는 여기다 땅을 하나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본대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얘기를 할게 내려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땅 주인이 개울이 있는데 개울 건너까지 그 사람 땅이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먹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공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임대 낼 테니까 땅 주인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이제 개울을 공사를 하는데 여름에 장마달이에요. 큰 경험을 했지 아주 그 600관짜리 주름관을 PVC 주름관을 그 땅에다 두 줄로 해서 짝 깔을라고 12개를 샀어요.

구술자 : 그렇게 해서 이제 포크레인 공텐짜리가 제일 큰 거예요. 그거를 불러다가 이제 깊으니까 그걸 불러다가 공사를 하는데 비가 역수로 오니까 포크레인 기사는 그만했으면 싶은데 나는 급하잖아요. 저기 위에서는 막 나가라고 그러고 능허대 중학교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공사를 해야 차를 또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붙들어 댔는데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포크레인 기사가 비가 역수로 오니까 그만했으면 싶은데 나는 그냥 독촉을



하니까 짜증이 났는지 그냥 큰 바가지인데 버무려진 물하고 섞인 흙을 들어서 그냥 떨어뜨리니까 그냥 짜부러지잖아. 그래서 한 달 만에 쫓어요. 그 비용 승질 나서 나도 남의 거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 포천에서 녹강 세멘을 녹강을 사다가 묻었다니까요. 더 늦은 거지. 그러니까

면담자 : 예전에 그 주차장 하던 자리가 지금 경찰서가 들어선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능허대 중학교 했는데 해양경찰서가 들어온 거지

면담자 : 처음에 능허대 중학교에서 해양경찰서로

구술자 : 그 건물 그냥 깔고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쫓겨난 게 옥련여고 밑에

면담자 : 옥련여고는 거기서 또 얼마나

구술자 : 거기서 12년인가 했죠. 12년 하니까 또 삼성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나가라 또 쫓겨나고 내 땅 없으니까 그냥 맨날 쫓겨나 다니고

면담자 : 옥련여고 밑에서 하실 때가 그럼 마지막이었었던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리고 강화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땅이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는 보상도 많이 못 받으셨겠네요.

구술자 : 그냥 쫓겨났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저희가 지도 하나 뽑아갖고 오면은 그 위치 좀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구술자 : 옥련여고 저기요. 그러세요 지금도 아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면담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학익동 쪽에는 누구 지인이 아무도 없어서 거기서 가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 조금 커서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길에 좀 들어가 보지 갈 일이 없었어요.

구술자 : 송도고등학교 밑에 그 옥련 터널 넘어오면서도 용현동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옆에 길옆에 거기가 다 내가 했던 데예요. 길옆으로. 근데 지금은 길을 옮겼더라고요.

면담자 : 대충은 어디쯤이라는 거를 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정확히 지도를 좀 보고

구술자 : 그래요

8. 누님, 형님 그리고 관동위치에 관한 이야기(55:33~1:03:36)

지원자 : 제가 질문하고 있을 테니까 지도 어떤 거 보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조금 구체적인 질문 몇 개만 할게요.
누님이 여성 면허 1호라고 하셨잖아요. 덤프트럭 면허예요

구술자 : 아니요. 택시 소형

지원자 :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한인숙

지원자 : 한인숙 너무 멋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형차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운행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왜 따신
건지 얘기하기 어려운가요

구술자 : 인천교통이에요. 인천 택시 네 지금도 있어요. 인천 택시 그 택시 차고에서 끌고
나오다가 옛날에는 그 말마차가 쓰레기를 치웠어요.

지원자 : 말이

구술자 : 말이 네. 말마차에다가 마차를 매달아가지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걸 근데 그 나오다가 말마차 쏜무니를 받으니까 말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데 그냥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와서 우리 집에 암만 연락해 봐야 호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또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 없어 그래서 무마가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수룩했어요.

지원자 : 그렇죠.

구술자 : 우리가 방앗간 할 때 우리 형님이 정미소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원동기는 여기 있으면 이제 장비들은 이쪽에 있어요. 그냥 이게 막 돌아가면 핏대를 긴 걸 끼워서 여기서 뭐 쌀 찌고 보리 찌고 밀가루 빵고 뭐 이런 게 긴 데다가 연결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끄트머리에 그 떡방아 찌는 데에다가 내가 산양이라고 그러죠. 하얀 그 염소 그거를 한 쌍을 사다가 거기다 댔어요. 저녁에 아침에 나와서 기술자가 나와서 그냥 이거 보지도 않고 원동기를 돌리니까 이게 테리⁶⁾ 치면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냥 멀쩡한 애들을 죽여 갖고 신경질 나 죽였는데 그 해 추석이에요. 그 염소 죽은 해에 추석 우리 형님이 부산에 있다가 왔어요. 그래 집에 온다고 왔는데 속옷은 어떤지 몰라도 겉옷은 싹 다 새걸로 사 입고 왔잖아.

구술자 : 와이샤쓰고 뭐고 근데 이제 떡방아 빵는 게 로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쌀을 부시는 건데 로라를 조였다 풀렸다 하는 볼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몸살이 나서 그 동네 거 다 해주고 한 집만 안 왔어요. 바로 우리 아랫집. 나는 그걸 몰랐는데 다 빵 줄 알고 몸살이 나서 들어가서 드러누웠는데 형님이 그 사람이 와서 떡방아 얘기를 하니까 형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하고 간 거예요. 쌀을 집어넣으니까 쭈르르 흐르니까 이걸 조인 거예요. 쌀이 안 내려오게 바삭 조여놓고는 이 핏대를 싹우니 싹어져요 안 싹워지지. 그러니까 요런 장축에다가 이 뿌레⁷⁾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뿌레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여기다 보도 시메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만큼씩 나와요.

구술자 : 뿌레 나사 조인 머리가 근데 거기에 이게 걸려가지고 예 딸려 들어가는데 여기 팔짱을 끼니까 팔짱 위에도 이게 중방⁸⁾이 있는데 아람들이 중방이 있는데 거기다 뒤구어리⁹⁾를 치니까 또 가랭이에다 꺾네. 그러니까 그냥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나가 떨어졌어요.

6) 내리치면

7) 고정볼트(보도시메라고도함)

8) 기둥과 기둥 연결 기둥

9) 발뺨꿈치



사고 났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뭐냐 하면은 이 고환이 이렇게 가느다란 실 같은 데 매달리고 껍질까지 다 벗겨졌어요.
없어요. 알맹이만 있고 그래서 내가 입고 있던 메리야스를 벗어서 그걸 싸서 남자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깐 그걸 싸서 이렇게 밀어놓고는 우리 집 앞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 가서 정문에 가니까 위병소 가니까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공동 경비를 서요.
그래서 한국군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국군 중대장이 또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응급 환자가 하나 생겼는데 정미소에서 다쳤는데 그냥 무지무지하게 다쳤다.

구술자 :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앰버런스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 내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흠길이니깐 그 군자에서부터 인천 기독병원까지 저 동인천 기독병원에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맨 흠길로 그냥 신천리로 해서 돌아서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내가 또 의정부에 가서
마나님을 하나 모셔다 맞춰줬더니 그 마나님도 내가 첫째를 낳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젖도
물리기 전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갖다 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가보니까 이게 한 2%
정도 모자라는 애를 어렸어도 알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나 사는 강화에서 왔대요. 도로 보낼 수 없냐니까 누군지도 모른대. 아니
조카가 낫지 어떻게 생판 모르는 저런 애를 갖다 기르냐 그랬더니 그냥 내비두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버려 뒀어요.

구술자 :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안 갔는데 지금도 그 상숙이라고 저희 엄마 아버지인 줄
알아요.

구술자 : 우리도 저 시골에서 좀 살았었는데 우리 형님이 다치는 바람에 6개월 병원 생활하는
바람에 그냥 기독병원도 한 2백 한 7~8십만 원 정도 값을 거 있어요.
지금도 뒤져보면 그 장부가 없어졌는지 몰라도 도망 나왔다니까요.
더 이상 될 게 없어서 논밭 다 팔아먹고

지원자 : 그게 군자에 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구술자 : 네 군자에 있을 때요.

지원자 : 여기 근처죠 군자가 여기

구술자 : 여기 월곶 지나서



지원자 : 관동은 어디인 거예요?

구술자 : 제물포고등학교였는데 거기서부터 자유공원 넘어까지

지원자 : 거기를 관동이에요

구술자 : 관동 1동 2동이 있어요. 관동이

지원자 : 그러면 인천 태생이신 거네요

구술자 : 네 인천 태생이에요.

지원자 : 저는 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인 줄 알았어요.

지원자 :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구술자 : 지도 갖고 오면 지금도 있을 걸요. 그 지명이

지원자 : 관동 거기가 울목동은 아는데 그 근처에

구술자 : 울목동 중앙동 신포동 그런데 신포동 하인천하고 사이하고 자유공원 넘어서 제물포
고등학교 있는데 네 거기까지 1동 2동이에요.

9. 카고트럭으로 운송을 하다(1:03:37~1:12:50)

지원자 :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조수하다가 직접 운전하셨을 때
몰랐던 차종이 일본에서 다 넘어온 차종인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히노 히노 이스스 그랬어요. 그때는

지원자 : 저 이거 일본 차에서 본 것 같아요. hino 맞죠 네 본 것 같아요.
그 차 덤프트럭이었던거예요



구술자 : 이게 지금 제네시스 마크 마냥 마크가 그렇게 생겼어요. 히노

지원자 : 그러면 지금 그 뭐지 덤프 트럭이었던 거죠 이때도

구술자 : 아니요. 그때는 카고 트럭이에요. 카고 트럭인데 이제 카고 트럭이 이게 길잡아요. 네 그 적재함 가운데다가 이 양쪽에다 구사리¹⁰⁾를 매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 폴대를 하나 세우지 그럼 적재물이 물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폴대를 치고 이거 고리를 풀면 문짝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여기 한쪽 바퀴로 올라타는 거야 [실기티잡아요\(01:04:40\)](#). 이렇게 그래서 부리고

지원자 : 그때 동양 제철에 트럭이 30~40대가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구술자 : 계속 소금을 날렸죠.

지원자 : 날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3일 동안 한 번 몇 번 정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술자 : 모르죠. 그거는 모르고 한 열두 서너 번씩 했을 거예요. 하루에

지원자 : 한 번에 선생님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선생님이 한 열두 서너 번 정도 도신 거 같아요. 몇 톤짜리 트럭이에요

구술자 : 8톤이요.

지원자 :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대충 소금이 어느 정도 물량으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구술자 : 아 그렇지요

지원자 : 그걸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소금은 하루 이틀이나 부리면 끝나잖아요. 다른 거는 또 운행을 하셨는지

10) 쇠사슬



구술자 : 그럼요. 다른 거 많이 했죠. 그럼요.

지원자 :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운반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 그냥 잡동사니죠. 뭐 일이 있는 대로 다 이것저것 안 실은 것도 없어요.

세멘도 싣고 다니고 뭐 모래 싣고 다니고 염부두에서 조금 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기 포천 이런 데 가면 다땅 공장이 있어요.

지원자 : 네 거기다 갔다주고

구술자 : 다땅공장에 무를 절여야 되니까 소금이 필요해요. 그럼 갖다 주고 저기 일동이나 이동 가면은 왕사를 파요. 개울에서 왕사 그 여의도에서도 모래 무척 봤어요

지원자 : 그 판 모래 얻다 갖다

구술자 : 인천에다 갖다 다 팔 거죠.

지원자 : 그래서 갯벌을 다 메웠던 거군요.

구술자 : 아니예요. 집 짓는 데에다가 한강사¹¹⁾니까 63빌딩 지은 거 그거 도자(불도저)가 흙을 모래를 끌어다가 이쪽에다 주면 여기서 포크레인 막 실어주고 거기도 무지하게 모래 파러 다녔어요.

여의도가 미군 공항 비행장이 떠나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모래를 파러 갔어요. 모래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간 거지.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놔두고 간 그 아나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철판 구멍 뚫린 거 그거를 활주로를 쓰려고 그걸 깔아놓은 거야. 그걸 갖다가 이렇게 터널을 파요. 모래를 이렇게 비스듬히 파고 차가 일로 빠구로 들어가요. 뒤로 그러면 아나방 깔아놓고 들어가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쪽 둘 저쪽 둘 뒤에 하나 이렇게 푸면은 5분도 안 걸려요. 한차 푸는 데 실어주는데 차가 들어갔으니까 막 밀어넣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파오고 그 저 팔당댐에서 댐 여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차까지 물에 덮치고 많아요.

구술자 : 그런 것도 소양강 댐 조금 싣고 가다가 소양강 댐으로 내 차가 들어가 갖고 조금 다 녹고 차도 못 건지고 옛날 같으면 다 그런 건 많아요.

11) 한강의 고은 모래



지원자 :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면 그렇게 막 잠기기도 했지만 고장이 나면 주로 어디 가서 고치셨어요?

구술자 : 여기 송의동이 다 정비 공장이었었어요. 여기 송의동 로타리에서 수인역 쪽으로

지원자 : 기계 공구 상가도 있고 막 이런

구술자 : 네 거기 공구 상가 말고 그 앞쪽

지원자 : 병원 앞에 인하대병원 쪽

구술자 :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송의동 로타리 있잖아요. 송의동 로타리에서 저쪽은 도화동이고 도화동 공설운동장 가는 거 그 옆에 보면은 쪽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수인역으로 내려오는 길 네 그 양쪽이 다 정비 공장이 있었어요.

지원자 : 글로 가서 고치거나

구술자 : 그 정비 공장이 이제 일로 이사 온 거지

지원자 : 일로가 어디예요?

구술자 : 여기 저기 정비 공장 있잖아 정비 단지

지원자 : 현대 조개고개 옆에 아니 어디 말고

면담자 : 방송국

구술자 : 예 방송 옆에 인천 방송 옆에 정비 단지 거기로 다 이사 온 거예요.
거기 있던 차들이 거기 공장들이

지원자 : 주유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주유도 주유소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냥 들통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말짜리로다가 대부분 주유소 가서 넣죠. 소금을 갖다 주고 왕사를 파 갖고 오면 수인역 지금 송의동 로터리 올라가는 철로 있는 데 있잖아요.

지원자 : 네네네.

구술자 : 그 앞에다 쪽 대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 가요. 차를 갑시다 갑시다. 그리고 거기가 모래 시장이었었어요. 모래 장이 서요. 아침이면 모래 실은 차를 거기 갖다 쪽 대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차를 끌고 가요. 가자고 가자고. 그래서

지원자 :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그랬나 봐요

구술자 : 네. 여기 그전에는 세멘 파동 모래 파동 공설 운동장이요. 공설운동장이 확장을 하면서 전국 체전을 할 땐가요. 처음으로 인천에서 전국 체전할 때 공설운동장 건설을 다시 꾸민다고 그래가지고 모래 그때 장마철이라 모래가 없었어요. 원주까지 가서 파 왔어요. 모래를

지원자 : 마지막으로 저 하나 더 동양화학 출입하실 때 어쨌건 잘 아는 직원이 있었기도 했을 거고 출입할 때 출입을 허가해 주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친했던 직원이 있었어요

구술자 :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들어오는 날은 그냥 바리케트가 그때는 바리케트가 없어요. 사람이 나와서 경비실에서 나와서 어디 가는 거냐 묻고 그랬는데 물건 나가면 뭐 출고증 있냐 이런 것만 따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원자 : 체크하는 사람만 계측기 체크하는 사람

구술자 : 계근실에는 항상 사람이 있죠. 신고 들어와서 계근하고 나갈 때 계근을 하고 차 번호가 있으니까

지원자 :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구술자 : 바쁜데요. 빨리 가서 한 번 더 신고 와야 되는데 남보다 하나 떨어지면 차주는 돈을



덜 받잖아요. 한 번을

지원자 : 혼나죠.

구술자 : 그러니까 차주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차주한테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지원자 : 진짜 바쁘셨겠어요

구술자 : 남들 가면 다 같이 따라가고 그래야죠.

지원자 : 주로 뭐로 술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 그렇게 생겼죠

지원자 : 안 드셨어요?

구술자 : 우리 아버님이요. 옛날에는 소주병이 대병이었어요. 그거를 국대접에다가 세 번 따르면 없어요. 그냥 별걱별걱 드시고 자식들 내쫓고 살림 부시고 그걸로 날 썰어요. 질러가지고. 한 달 30일이면 25일은 남의 집 추녀밑¹²⁾에서 살았어요.

지원자 : 쫓겨나서

구술자 : 장마달이면은 장마달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먹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술을 먹어요. 나 지금 맥주 소주잔으로요. 맥주 한 컵도 안 먹어봤어요. 내 몸에 알코올이라는 건 0%도 없어요.

지원자 : 대단하시네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구술자 :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술 먹으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먹었어요. 안 먹지

지원자 :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보통 보고 배운다고 하던데 그러면 힘드시게 일하고 나면

12) 처마 밑



어떻게 그거를 풀으셨어요?

구술자 : 그냥 자는 거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단한데 뭐 쓰러져서 자기도 바쁘지 뭐
난 지금도 잠이 많아요. 나이 먹었어도

지원자 : 저는 얼추 좀 물어봤는데 필요한 거는 제가 녹음돼 있으니까.
네 선생님 이제 질문

10.조개고개와 주차장 위치 확인(1:12:51~1:26:07)

면담자 : 저기 그 주차장 자리가 여기가 송도고등학교거든요.
네 옛날에 주차장 자리가 그러면 이쪽이었었던 거예요.

구술자 : 송암미술관 여기잖아요. 네

지원자 : 그쪽 아니고

면담자 : 송암 미술관

지원자 : 옥련 여기 여기

면담자 : 이 자리

지원자 : 여기가 터널이고

구술자 : 이거 터널 요기 요기요. 가시 대로변 바로 옆에서 했어요. 여기

지원자 : 그전에는 이 안쪽에서 여기가

구술자 :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중학교 자리가 어땠어요?

지원자 : 여기예요. 여기



구술자 : 옥련 여자 중학교 가는 여기 있지

지원자 : 능허대 여기 있을 거예요.

구술자 : 여기서 하다가 옴로 내려간 거야.

지원자 : 능허대가 바로 여기고

면담자 :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시구나.

지원자 : 삼성 재개발 때문에 또 쫓겨나셨구나.

구술자 : 네. 그러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나가

구술자 : 여기에 커피 자판기 재료 파는 가게가 있었고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전나무가 몇 개 은행나무가 쭉 있었어요. 몇 개.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넓었지.

지원자 :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뒷길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죠.

구술자 : 예 이길 있죠.

지원자 :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술자 : 여기서 들어가죠. 이렇게

지원자 :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 길이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 그런 폐물건 쌓아놓은 데도 되게 많았고 여기는 또 점집도 되게 많았고 산 밑에
약간 그랬던 동네여 가지고 기억나세요 여기 위에 산미 산 위에 약간 점집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구술자 : 이거 사격장이잖아요. 이게 사격장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지원자 : 네네네.

구술자 : 요 길이에요. 요거 그죠 여기는 주택이 한 열댓 집

지원자 : 이 주택 집에서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 그러니까 미장원도 하나 있었고 저기가 여기서 살았어요.

지원자 : 저기가 누구예요

구술자 : 강인자 강인자가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들어가는 데

면담자 : 그럼 조개고개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원자 : 네 이게 조개고개 홍어

구술자 : 이게 조개고개예요. 요거

지원자 : 여기 여기서

구술자 : 아니 여기 고개 있잖아요. 여기 중학교 있긴 한데 그게 이 조개 고개예요.

지원자 : 여기서도 올라가는 여기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구술자 : 아 그거는 저기 유원지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지원자 :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올라가고 여기도 가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약간 언덕이잖아요. 터널이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를 조개고개라고 하더라고.

구술자 : 아니 이거는 저기고 터널은 나중 일이고 여기가 원래가 이게 조개고개야 이거 요 도로가 이 도로가 여기서 송도역전 나가잖아요. 여기 원래 거기가 조개고개예요. 여기가 그 발전기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면담자 : 여기가 발전기

구술자 : 네. 발전기 공장이고 여기 끄트머리는 샌드위치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어.

지원자 : 샌드위치 판넬이요.

구술자 : 네 판넬 샌드위치 판넬

지원자 : 이렇게 다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떠신지 느낌이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변화된 거

구술자 : 자주 오죠 자주 와요. 근데 지금 옛날 얘기하면은 이게 옛날 저수지죠.

지원자 : 저수지 여기도 다

구술자 : 미술관앞에

지원자 : 저수지가 여기가 다 저수지였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 거거든요

구술자 : 다 저수지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여기 안 쫓겨났어요.
이 자동차 회사

지원자 : 아직 있어요.

구술자 : 정비 공장.

지원자 : 네네. 아직 있어요

면담자 : 그러면 주로 홍어 가게가

구술자 : 여기요. 여기 여기

면담자 : 거기가 여기예요.



구술자 : 흥어 예 여기가 흥어예요.

면담자 : 그렇구나

구술자 : 여기 조개고개이에요. 여기

지원자 : 제가 이쪽인 줄 알았더니 위에 쪽을

면담자 : 제가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흥어 가게 단지를 본게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지원자 : 새인천 유원지도 놀러 가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 그럼요. 그거서 낚시도 하고 그랬는데

지원자 : 자녀분이 몇 명이세요?

구술자 : 많아요.

지원자 :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구술자 : 야만인이예요.

면담자 : 제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흥어 가게가 많았다고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옛날 여기는 이제 대우전자 자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여기 흥어 가게를 말씀해 주신 건 이쯤을 얘기해주셨어요

구술자 : 네 거기가 여기죠. 이쪽이 이게 동양 제철이잖아요.

한참 와야지 한참 오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면담자 : 요 샛길이 지금 요 샛길이



구술자 : 이게 점점점점 있는 게 지금 철로 길이에요. 수인선 철로 길이에요.

지금도 이쪽에 보면 저 이삿짐 센터 있죠. 이쪽에 삼광아파트가 글로 올라가는 데 보면 옛날
구도로 삼광 아파트 구도로 올라가는 데 보면 그 밑에 보면 이삿짐 센터가

지원자 : 뭐가 있어요? 예 창고 같이 있는데

구술자 : 택배 회사인가 뭔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수문이 지금도 있어요.

수문 통이

지원자 :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구술자 : 그래요. 네

지원자 : 있었다. 과거에 거기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구술자 : 그러니까 이 흥어 가게는 여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가

면담자 : 여기가 조개고개이라는 거죠

구술자 : 이게 조개 고개고 여기가 왜냐하면은 이 위에 보면은 지금 전화국 있잖아요.

유원지 넘어가는데 전화국 그 밑에가 어업 조합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가서 조개를 캐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서 캐다가 꺾질 버린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조개고개이에요.

지원자 : 옛날에 여기도 다 바다였죠. 여기까지

구술자 : 다 바다지요 여쪽에

지원자 : 실미도에서 넘어온 그 분들 있잖아요. 실미도에서 아니 실미도에서 훈련받다가 그
사람들이 이 조개고개에서 대치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세요? 혹시

구술자 : 그거는 아닌데요

지원자 : 그래요 아니 어떤 역사 기록해 주는 분이 이 조개고개에서 버스를 두고 대치하다가



버스를 타서 이제 서울로 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 아니요. 오류동이에요. 그거는 오류동에서 태화 버스를 뺏었지 오류동에서 서울
가려고 그러다가 이 월미도에서 나온 건데 무슨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원자 : 그럼 월미도에서

구술자 : 저기 영종도 가면 그 무슨 섬이더라.

지원자 :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글을 조개 고개를 찾아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서 여기가 왜 그런 일이 있었지 했는데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요.

조개고개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 보네.

면담자 : 그리고 이 조개고개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조개를 캐고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
조개가 한두 개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줍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지원자 : 근데 조개 층이 있대요. 거기가 층이 조개 그 퇴적물 쌓인 거 보면은 그 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엄청 많은 거지.

면담자 : 그러니까 이렇게 흘리는 거 있고 묻은 것도 있고 해서

구술자 : 저기 사는 데가 어디야 영종도 저기 영종도 앞에 무의도 무의도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알아보려고

지원자 : 되게 귀여우시다.

면담자 :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되게 옛날에 개구쟁이고 되게 발랄하시고 막 그렇게 자라 오신
것 같아요.

구술자 : 남들한테 구애받지 않고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씨족 들만 사는 김 서방네
들만 사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주 팔세를 많이 받았어요.

지원자 : 그게 어디예요? 군자요 군자



구술자 : 김해 김씨 사람들만 사는 데로 가가지고

지원자 : 왜 거기까지 가셨지

구술자 : 우리 아버님이 쫓겨났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글로 갔는데 하여튼 김 서방네서 얘기하다가 그냥 수군 수군 얘기하다가 지나만 가도 그냥 자꾸 타동탕¹³⁾거야.

지원자 : 관동이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면담자 : 중구청 그쪽 근방

지원자 : 피난을 너무 가깝게 가서.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피난을 가서가지고

면담자 : 그때 제가 통화할 때 들은 걸로는 이제 아버님이 고위직에 있으셔서가지고

구술자 : 이 빨간 완장한테 걸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야.

면담자 : 부랴부랴 그냥 가셨다고

구술자 : 그러니까 이 편을 갖고 갔으니까 가자마자 집을 샀죠.

지원자 : 그치 정미소도 하셨고

구술자 : 남의 집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때는 수인선에서 수원 비행장까지 이 수인선 철로 옆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었어요. 송유관이 근데 여기 지금 유공 대우 어디 갔어? 대우 자리 여기 안 보이는 이게 대우라면요. 철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시다찌라고 그랬어요. 애 지명이 시다찌야 애 수인선 기차가 뽁뽁이 기차가 거길 그냥 빨리 못 올라가고 그냥 살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뛰어내리고 차비 주면은 다 담배 사 피고 여기 시다찌 고개예요 여기가

면담자 : 거기 시다찌 고개라는구나.

13) 말을 멈춘다



지원자 : 거기가 그 물텀병 가는 그 길 물텀병 앞으로 지나가는

구술자 : 아니에요. 물텀병은 이 우위고

지원자 : 더 위고 그 밑에도 보면

구술자 : 네 저 아래쪽으로 지금

지원자 : 송의역 가는데

구술자 : 예 예 예 저 옛날 구 터미널 가는데 그쪽으로 가야 저기 옛날 수인역이잖아요.

지원자 : 근데도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느리게 갔어요. 언덕이 아닌데

구술자 : 요기 언덕이었어요. 그때는 차가 그만큼 나쁜 거죠.

지원자 : 언덕이었어요. 어디가 언덕이었어요?

구술자 : 여기 저 지금 CGV 방송국 있고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면은 왜 용현고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가 저기죠. 유공 이 대우 자리 여기가 네 유공 자리예요. 네. 유공 탱크가 있던 자리.

지원자 : 근데 거기가 언덕이었어요.

구술자 : 언덕이었죠.

지원자 : 상상이 안 돼요. 저희는 이미 다 평지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구술자 :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거기를 빨리 못 가고 그냥 살살 갈 때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이 수인역까지 가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서 학교 가고 그러죠. 그 지명이 시다찌라고 그랬어요.

지원자 : 근데 49년도면? 77 76 77



구술자 : 얼마 안먹었어요

지원자 : 네

구술자 : 아유 참

면담자 :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실 거 없으세요?

구술자 : 허라면 많아요. 근데 나도 이제 가야지 그만해요.

면담자 : 그래도 오늘 얘기하시면서 즐거우셨죠?

구술자 : 네

지원자 : 다행이네.

면담자 : 긴 시간 인터뷰해 주시라고 감사드렸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일 하신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특히 점심 드시고 잠깐 좀 쉬었다. 일을 하세요.
더워 드시면 큰일 나요

지원자 : 운전해서 가세요.

구술자 : 그럼요.

지원자 : 그럼 이거 한 잔 드시고 정신 빠짝 차리시고요

구술자 : 아까 보셨잖아요. 70년도 낸 면허라고

지원자 : 네